



## 제도적 장치와 도덕성 구축으로 벤처기업의 투명성 제고

지난 11월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이 개최되었다. 최근 일부 벤처기업의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 벤처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재무 및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협회 조현정 회장의 개회사와 중소기업청 이승훈 차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벤처윤리위원회 강석진 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의 ‘금융감독정책방향’, 다산회계법인 김일섭 대표의 ‘벤처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한양대 한정화 교수의 ‘벤처기업의 위기관리 전략’에 관한 주제발표와 PSIA 박상일 대표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포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 사회 : 정광선(중앙대 교수) • 기조발제 : 강석진(벤처윤리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 전홍렬(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일섭(다산회계법인 대표), 한정화(한양대 교수), 박상일(PSIA 대표)

### 회 계 투 명 성 을 위 한 세 가 지 제 언

●◎●**전홍렬(금융감독원 부원장)** | 회계 관련 도덕성은 경영현황을 있는 그대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으로, 회계투명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꿈을 보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한 회계처리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자금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벤처기업 회계투명성을 위해서 벤처기업가는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 두어야 한다.

우선, 우리 금융자본시장의 감시장치를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만만치 않음을 인지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각종 공시 의무가 직·간접적인 분식회계 감수수단으로 작동하고 있고, 분식회계 관련 집단소송제도와 외감법상 내부 고발자 포상제도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회계분야를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고, 투명회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분식회계를 기업 스스로 해소할 최후의 기회인 감리면제 기간을 적극 활용하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 내부회계관리제도로 분식회계 예방해야

●○●**김일섭(다산회계법인 대표)** | 주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필수적인데 그 자본시장의 기본 전제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분식회계다.

분식회계는 매출과 수입의 과대·과소 계상과 비용 및 평가 손실의 과소 계상, 부외부채, 자산유용, 토정거래와 가공자산, 가공부채와 같은 가공거래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통제환경, 통제활동, 리스크 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구매, 제조·가공, 판매, 자금·금융, 회계 분야에서 거래의 정당성과 완전성, 정확성, 기간귀속, 실물과의 합치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상의 거래와 잔액의 실재성, 권리와 의무, 완전성도 얻게 된다. 다시 말해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평가, 측정, 표시와 공시 등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통제·관리·감독하는 장치이다. 내부통제제도 중에서도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기 도입으로 투명경영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 투자중심의 자금공급 확대로 벤처 생태계 위기 극복

●○●**한정화(한양대 교수)** | 벤처 생태계는 급팽창과 위축 및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벤처기업과 기업인의 몰락을 가져왔다. 특히 최근 불거진 분식회계 사건은 생태계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개별 기업의 문제인가, 생태계 구조적 문제인가? 벤처기업은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알려지지 않은 불확실성과 함께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의 약점과 기업가 역량의 한계,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외부의 충격들이 벤처기업을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중심의 벤처자금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모태펀드의 확대를 통해 초기 투자중심의 자금조달 비중을 증대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감사 기능과 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 벤처기업가의 진정한 보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

●○●**박상일(PSIA 대표)** | 1988년, 미국 유학시절에 남들이 어려워 하는 일에 도전을 해보자는 결심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1996년 한국으로 돌아올 무렵, 안전한 길과 힘든 길 중에 다시 나의 선택은 힘든 길이었다. 그리고 1997년 창업 당시에 미국과는 다른 사업 환경에서 저질규제, 편법과 관행, 과실죄 등의 난제에 부딪혔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우수 인력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벤처의 거품이 빠지고 NT가 부상하는 현재, PSIA는 연평균 40%의 성장률을 보이며 차세대 원자현미경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엔 투명경영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투명경영은 정보의 공개에서 시작된다. 숨기는 것이 없을 때 신뢰가 쌓이기 마련이고, 그러한 신뢰가 존경을 만든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존경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이 나온다. 벤처기업가는 한탕주의와 이기주의, 외형주의의 허황된 꿈에서 벗어나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 홍 렬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 일 섭 다산회계법인 대표



한 정 화 한양대 교수



박 상 일 PSIA 대표